프리즘

방문판매와 출판인의 양식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방물장수, 보부상 등에 의한 가정방문판매가 성행하였다. 오늘날까지도 방문판매는 광고와 더불어 상품판촉활동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 현대기업에 있어서 '세일즈맨은 경영의 혈액'이라고 한다. '피가 통하는 판매방식'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출판계의 방문판매는 전집류가 간행되기 시작한 50년대 말부터 비롯되어 6,70년대에 대호황을 구가하다 80년대의 '단행본시대' 이후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전집류의 방문판매는 아직도 면면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듯싶다. 88년에 나온 「방문판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출판물 방문판매에 의한 판매 계약고는 연평균 5%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최근에는 백만원 가까이 되는 정신문화권 刊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초판이 매진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책 자체가 워낙 훌륭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영업대행을 맡은 웅진출판사의 탁월한 방문판매 영업망이 큰 일조를 했으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에서는 "한국인은 방문판매에 약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에 약하고 충동적인 구매를 잘 하는 심성을 이용해 무리한 판매를 함으로써 출판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지난 1~8월중 접수된 방문판매관련 소비자고발 건 분석에 의하면, 고발된 업체 가운데 국내 유수의 한 출판사 이름도 끼어 있는 것. 미성년자들에게 문학전집류를 팔고난 뒤 부모의 반대 등으로 매월 불입액을 감당키 어려운 그들이 해약을 요청하면 '합법적으로' 묵살한다고 한다. 즉 올해 시행된 방문판매법의 해약사유 중에 미성년자와의 계약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성년 소비자가 계약을 무효화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함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독서주간(9.24~9.30) 3일 전에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의 독서욕구는 방문판매되는 전집류를 부모의 허락 없이 장만해 놓은 것으로 분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잠재적 독서인구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서적 방문판매는 출판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기왕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바에 '출판인의 양식'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김중식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문학과 법은 얼핏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라드브르흐는 "원초의 시절에는 법과 예술도 또한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예전에는 정치나 법이 곧 예술이었고, 예술이 정치나 법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원대 張庚鶴교수의 저서 「法律과 文學」(교육과학사)은 법과 문학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문학속에 감춰진 법의 모습을 꺼내 보여주는 드문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 책에서 본보기로 삼고 있는 문학작품은 「베니스의 상인」「세빌리아의 이발사」「피가로의 결혼」「로미오와 쥴리엣」「죄와 벌」을 비롯해 우리의 고전 「춘향전」「심청전」 등으로, 이들 작품에 배어 있는 법적 요소를 따로 떼내 읽는 재미를 주고 있어, 여기에 인용 소개한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꾸며낸 법을 허위적인 것으로 적대시하므로 그의 작품에서는 허구의 법형식에 물들지 않는 하층계급의 깨끗한 혼의 정성에 대하여 상층사회의 정성없는 부패된 법형식을 대조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주제를 이루고 있다. 「부활」(1899년)에서는 그것이 카츄샤와 네프류도프와의 대조에서 예각적으로 표시된다. 카츄샤는 소녀 때 처녀성을 빼앗긴 탓으로 첩을 거쳐 칠년의 창부 등의 타락생활에 빠졌다가 손님을 독살하고 금품을 강탈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법정에 나섰는데, 그의 처녀성을 빼앗은 네프류도프는 그녀를 재판하는 배심원으로 맞서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법제도는 죄없는 하층계급자인 카츄샤를 잔인하게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지만, 상층계급자인 네프류도프의 양심의 죄를 벌주지 않는다. 네프류도프는 그녀를 구하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하였으나 법정은 그것을 용납치 않는다. 네프류도프는 드디어 모든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알몸뚱이로 되어 카츄샤를 데리고 가는 유형수의 일대에 참가하여 그녀에게 용서를 빈다. 그는 국가의 재판소에 의한 형벌보다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혼의 형벌이 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외면적인 것은 내면성의 발로인 점에서만 의의가 있다. 법은 외면성만을 평가하고 내면성에는 벌을 주지 않는다. 러시아의 법제도는 네프류도프의 외면성만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카츄샤의 내면성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살인죄로 몰게 되는 것이다.

또, 이 글에서 평하려고 하는 「산송장」(1900년)은 유부의 부인의 이중결혼사건을 취급한 것인데, 1897년 모스크바에서 생긴 실제의 범죄사건을 희곡화한 것이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는 희망을 들어주려고 남편이 자살한 것처럼 꾸며놓고 행방불명이 된 후 아내는 러시아의 번잡한 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 제2의 결혼을 하였으나 불행히도 '산 송장'으로 생잔한 남편이 형사한테 발각이 되어 그들 부부는 이중결혼 및 그 방조죄에 걸려 시베리아 유형의 선고를 받는 사건이다. 여기에 남편의 거짓 자살은 아내의 행복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에서 행한 것이지만, 법제도는 그의 외면성만 보고 그의 내면의 양심, 사랑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처벌을 가한데 대한 톨스토이의 분노가 이 희곡의 모티브를 이루고 있다. 주인공인 남편 훼지아는 법정에서 관대한 처분을 원했건만 "법률은 진실을 요구합니다"하면서 엄숙한 태도로 도사리는 판사의 태도를 보자, 참지 못하여 판사에게 대들면서 "당신들은 매달 20일에 더러운 직업의 보수로 돈푼을 받고 제복을 입은 채 태연히 수많은 민중에게 뽐내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민중의 적은 손가락만치의 값도 못된다"고 욕을 퍼붓는다. 법 및 그 변호자와 그 기구에 대하여 톨스토이의 반발이 얼마나 격하냐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다. (중략)

제1단계의 작품 「전쟁과 평화」「안나 카레리나」 같은 것이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제2단계 이후의 작품들은 이른바 '종교를 위한 예술'의 입장에서 씌어진 것이다. 「산 송장」은 하나의 예술품이기 전에 법 및 재판제도, 형무소제도 등을 비판한 것이며 73세의 노인의 글치고는 패기가 넘쳐 흐르는 저항의식이 충만한 항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에 대한 톨스토이의 저항은 당장에 혁명의 불꽃으로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악에 반대하지 말며, 불법에 저항하지 말며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하였다. 「산 송장」의 주인공 훼지아도, 아내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민법이나 종교에서 죄악으로 인정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만 자살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시베리아로 추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되어도 교회에서 참회하는 동시에 아내의 제2의 결혼을 파기시키게 된다고 하는 모순된 법제도에 항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참고 견디면서 재판소의 복도에서 피스톨로 자살해 버리고 만다. 톨스토이는 1910년 11월20일 최후로 집을 뛰쳐나와 아스타포 역장의 사택에서 객사하였는데, 그것은 「산 송장」의 주인공 훼지아의 죽음처럼 철저한 무저항주의의 최후의 '대결'이라고 할 것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114호 / 1992년10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鎭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 · 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자문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彦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愼鏞廈 安秉永
安輝濬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熏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璋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彧鍾 鄭雲暎 鄭晋錫
鄭鎭弘 曺南鉉 曺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 · 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